



기고 · 기고 · 기고 · 기고 · 기고 · 기고 · 기고

무항생제로 사육하는 HJ SYSTEM 신기술 축산 개요

그린텍 *Green Technology Corp.

지구의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오늘날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그 영향을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받고 있어, 갈수록 그 피해는 늘어나고 있다.

이는 현대문명이 발달하면서 생활의 편의성을 위하여 개발된 많은 문명의 이기들로 인한 환경오염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을 훼손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땅과 물, 공기 그리고 주거 공간 전체가 오염된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의 시급한 과제는, 지금까지 우리들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인간위주의 편의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오염시키고 훼손시킨 우리가 살고 있는 땅-지구의 환경을 복원시키고,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모든 기술과 공정이 환경친화적으로 바뀌어 지구를 살리고, 우리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2003년 12월부터 음성에서 시작된 조류인플루엔자가 2004년 봄까지 축산 농가는 많은

피해를 보았으며, 전국적인 피해 규모는 약 1 조원에 이른다.

조류인플루엔자는 2003년 12월과 2004년 봄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맹위를 떨쳤으며, 같은 시기에 베트남과 태국 및 중국 등에서도 발병하였다. 또한, 베트남과 일본에서 조류인플루엔자독감으로 인한 인명 피해까지 나오고 있다.

2004년 12월 일본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하여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나와 인천 공항 입국장에서 일본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한 검역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 발병하여 2004년 봄까지 막대한 피해를 준 후 잠시 진정되는 듯하다가 2004년 12월 22일 광주의 오리농장에서 저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9천여마리를 살처분 하였다.

이번에 발병한 광주 오리농장의 조류독감은 2003년 12월에 발병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는 다른 바이러스로(저병원성) 발표되었는데, 저병원성 바이러스도 유전자 변이를

통하여 강독으로 전환될 수 있어 살 처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조류인플루엔자는 인류에게 대재앙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경고와 우려 속에서 이를 해결해야하는 심각한 현안으로 지금 우리에게는 대두되고 있다.

질병이 발생하면 농장 내 가축들을 살 처분한 후, 화학약품으로 농장을 소독하고, 일정기간 질병이 수그러들 때까지 사육을 하지 않는 방법 이외에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현실이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땅과 물의 오염이 주원인으로, 오염된 사육장에 계속하여 가축들을 사육할 경우 점점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항생제와 백신 등 약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축들이 약해진 저항력으로 병을 이길 수 없게 되면 폐사율이 늘어나 생산성이 낮아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방안으로 현재 대부분의 축산농가에서는 화학약품으로 사육장을 소독하고, 질병의 조짐이 보이면 바로 고단위의 항생제와 백신 등 약품을 가축들에게 투여하게 된다.

이렇게 계속하여 가축에게 항생제와 백신 등을 투여하게 되면, 가축은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 점점 고단위의 약품 투여를 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게 된다. 또한, 질병이 발생하면 행하는 화학약품 소독과 가축들에게 투여하는 항생제등의 남용은 바이러스에게 내성을 생기게 하여 변종 바이러스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해 이미, 어떠한 항생제도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보고가 되고 있고,

이는 인류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항생제와 백신 등 약품을 투여시켜 키우는 닭이나 오리, 소, 돼지를 우리가 먹게 되면, 그 약품을 그대로 몸에 받아들여지게 되어,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닌, 약품덩어리의 좋지 않은 에너지를 섭취하게 되어 우리 몸은 이것을 정화시키기 위해 더욱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우리가 먹는 축산물 등 모든 식품들은 먹어서 몸에 좋은 작용을 하는 양질의 에너지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생제와 백신에 의존하는 현재의 축산기술과 농약을 마구 뿌려대는 대부분의 작물재배 농법 및 기타 모든 분야에, 환경오염을 유발시키지 않고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적용하여, 그러한 기술로 생산된 농축산 및 기타의 생산품들이 우리 몸에 부작용을 주지 않고 좋은 영양원이 되게 하여야 한다.

그린텍의 HJ SYSTEM 신기술 축산은 닭이나 오리등 가축 사육시, 병아리 해독부터 시작하여 사료와 물 및 사육장을 정화시키면서 사육하게 되므로 병아리의 저항력이 높아지게 되어, 항생제등 약품투여를 하지 않고도 가축들이 강해진 저항력으로 병을 이겨내며,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는 기술이며, 이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정화시키면서 길러내는 환경 친화적인 축산농법이다.

그린텍의 HJ SYSTEM 축산 신기술은, 축산농가 사육장의 오염된 지표면과 오염 안 된 땅속의 토질과 물을 비교 분석하여 마그마의 원천 에너지 파장을 받을 수 있는 양질의 토



질과 물로 오염된 땅과 물을 복원시킨다.

그린텍의 HJ SYSTEM 축산 신기술은, 지구중심과 지표면, 그리고 자연과의 활발한 중력장의 영향에 따라 순수에너지 교류가 일어나는 파장 안에서 가축들이 자연의 순수 에너지 파장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사람이 먹어서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는 축산물을 생산하게 하는 최상의 환경 친화적인 축산농법이다.

HJ SYSTEM 신기술 축산은 조류인플루엔자를 이길 수 있으므로, 닭, 오리등 가축들에게 항생제와 백신 등 약품투여를 하지 않고 사육할 수 있는 획기적인 첨단 기술이다.

사료 또한 우리의 HJ SYSTEM의 정화장치를 통하여 정화 처리하여 가축들에게 급여하게 되면, 가축들이 먹어서 속에서 모두 발효가 되게 만드는 기술이므로, 사료는 고효율의 영양원이 되어 닭, 오리등 가축에게 축적되어 우리가 먹을 경우 몸에 아주 좋은 작용을 하게 만드는 최첨단의 신과학 기술이다.

| HJ SYSTEM 기술요약 |

1. 사육장의 오염된 토질과 물 정화.
2. 일반 배합사료는 일체의 첨가제등을 넣지 않고 보다 영양 많게 특수처리 하여 가축에게 급여.
3. 병아리 입추 전 병아리 해독장치를 통해 전기 부화된 병아리를 저항력이 강한 튼튼한 병아리로 체질 개선시킨 후 사육장에 투입.
4. 정화시킨 사육장에서 정화시킨 물과 정화 처리한 사료만을 급여하여 키우며 일체의

항생제와 백신 등 약품 투여를 하지 않음.

| HJ SYSTEM 정화장치와 각 기능 |

1) 병아리 해독장치

어미닭부터 시작된 병아리의 약해진 저항력을 높이고, 전기를 사용하여 인공 부화하여 태어나는 병아리를 건강한 상태로 키우기 위해 일정 시간 해독장치 위에 두어 체질 개선을 시키게 한다.(향후 종계장 및 부화장에 HJ SYSTEM을 적용하게 되면 건강한 병아리를 생산하게 되므로 병아리 해독과정이 필요 없게 된다.)

2) 사육장 정화장치

사육장의 오염된 지표면과 오염 되지 않은 땅속의 토질과 물을 비교분석하여, 오염된 땅과 물의 독성을 제거하고 자연의 순수 에너지 파장을 잘 받을 수 있는 양질의 토질과 물로 사육장을 복원시킨다.

* 사육장에 급수되는 물의 상태에 따라 양질의 물이 아닌 경우 물 정화장치를 별도로 설치하게 되나, 사육장에 설치되는 정화장치가 급수되는 물까지 정화시키게 되므로 아주 저급수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음.

3) 사료 해독장치

일반사료의 사료성분을 각각 천연의 순수 원소 성분으로 복원시켜 병아리와 닭들이 먹어서 속에서 발효될 수 있게 만들고, 사료가 가진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시킨다.



** 위와 같이 정화시킨 사육장에서 해독하여 투입된 병아리들은 정화 처리한 사료와 물을 먹고 자연과의 활발한 중력장의 영향에 따라 순수한 에너지 교류가 일어나는 파장 안에서 사육기간 내내 자연으로부터 순수 고에너지를 유입받으며 자라게 되므로 항생제와 백신 등 일체의 약물을 투여하지 않고도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된다.

| HJ SYSTEM 시험사육 사례 |

그린텍은 현재의 축산기술에서 지금까지 전세계의 어느 국가나 연구소에서도 시도할 수 없었던 현대과학을 넘어서는 최첨단의 놀라운 축산 신기술인 HJ SYSTEM으로 2003년 11월부터 2005년 2월 현재까지 경기도 양평과 용인, 충남 아산, 충북 음성에서 총 22회에 걸쳐 육계와 삼계, 토종닭 및 오리 시험 사육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모두 성공적이었다. 2004년 10월과 2005년 1월 2차례에 걸쳐 경기도 양평에서 무항생제 주문사료로 각 21,500수 및 24,600수 시험 사육한 육계 사육결과는 육성율 95.8%과 92.8%, 사료 요구율은 1.67과 1.77로써 시험 사육에 참여했던 국내 굴지의 모계열화업체 관계자도 매우 놀라워했다.

또한, 충남 아산농장에서는 현재 무항생제 사료로 주 2,000수씩 입추하여 오리 사육을 하고 있으며, 평소 질병으로 항생제를 투여하고도 50% 이상의 폐사율을 보였는데, HJ SYSTEM을 적용한 뒤부터는 5% 미만의 폐사율을 보이며 아주 잘 자라고 있다.

| HJ SYSTEM 사육 결과 |

1. 닭과 오리들은, 병아리 때부터 출하할 때까지 일체의 항생제등 약품을 먹이지 않았으며, 정화된 사육장에서 해독 처리된 사료와 정화시킨 물만 먹고도 질병으로 폐사되는 개체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랐다.
2. 닭들과 오리들은 정화된 사육장의 땅과 물, 그리고 사료를 통하여 순수에너지를 사육기간 내내 계속 유입시키며 자라기 때문에 매우 활발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된다.
3. 닭과 오리의 육질은 지방이 별로 없어 먹으면 매우 담백하며, 닭과 오리의 껍질도 일반 사육방법으로 기른 닭과 오리에 비해 매우 얇게 형성되어 있다. 또한, 닭과 오리를 백숙 등으로 요리한 국물도 그 맛이 매우 담백하다.
4.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하여 기른 닭의 육질은 일반 배합사료로 길렀을 때 보다 더욱 육질이 부드럽고 연하며, 가슴살도 펍펍하지 않아 맛있으며, 조리 시 국물 맛이 매우 담백하다. (일반 닭으로 조리한 국물과 비교했을 때- 기름을 한번 걷어낸 것과 같음)
5. HJ SYSTEM으로 사육 시 닭과 오리 등이 사육기간 내내 먹은 정화 처리한 사료는 먹어서 속에서 발효하게 되므로 좋은 에너지로 바뀌어 닭과 오리의 몸에 축적된다. 또한, 정화된 땅과 물을 통하여 유입된 순수



에너지가 닭과 오리에게 축적되어 시중의 어느 닭과도 비교를 불허하는 고에너지를 갖춘 닭, 오리가 되게 된다.

이러한 고에너지를 축적한 닭과 오리등 축산물을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 몸의 레벨이 낮은 에너지를 좋은 에너지로 바꾸어줄 수 있는 등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작용을 하게 되어 일반인과 환자 모두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다.

4. 일반사육방법으로 기르는 대부분의 닭과 오리등 가축은 오염된 사육장에서 자라게 되고, 또한 저항력이 약해서 병에 잘 걸리므로 항생제와 백신 등 많은 약품을 투여하여 키우게 된다. 또한, 가축들이 먹는 사료에는 사료의 원료인 옥수수 등의 재배시에 사용하는 농약성분과 제조공정상에서 함유하게 되는 좋지 않은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닭과 오리등 가축들은 이와같이 오염된 사육장에서 좋지 않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사료를 먹고 자라게 된다. 이렇게 자란 닭과 오리등 가축들은 순수하지 못한 에너지가 체내에 축적되어, 그 고기를 우리가 먹을 경우 사육기간 동안 투여된 항생제와 백신 등 약품과 사료에 함유된 농약 등의 성분을 우리 체내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 우리 몸의 에너지 레벨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는 우리 몸에 영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좋은 에너지가 닭과 오리고기 등으로 우리 몸에 섭취된 낮은 에너지를 좋은 것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 몸의 에너지가

소모되므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5. 환경의 악화와 현대의 대량 소비를 위한 밀집 사육으로 닭, 오리등 사육장의 오염도는 날로 심각할 정도로 악화되어, 육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육기간 내내 많은 종류의 약물을 투여하여 키우게 되는 현재의 축산기술로 생산되는 닭, 오리 등은 과거 자연 방사하여 기르던 때의 에너지 값을 따를 수 없으며, 이렇게 생산된 육류는 우리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린텍의 HJ SYSTEM으로 닭과 오리 등을 사육하게 되면 항생제와 백신 등 약품을 전혀 투여하지 않고 육성시킬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기른 닭과 오리등은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작용을 하게 하는 순수 고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어 우리들이 그러한 육류를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HJ SYSTEM 신기술 축산의 유리한 점 |

1. 닭과 오리의 육질에 있어 일반사육방법으로 기르는 닭과 오리에 비교하여 매우 좋다. (닭의 앞 가슴살로 비교할 경우 토종 방사 닭과 같이 쫄깃하며 결이 나 있다.)
닭과 오리 모두 일반 사육방법으로 기른 닭과 오리에 비해 지방층이 매우 얇게 형성되어 있다. HJ SYSTEM으로 기른 닭과 오리로 요리를 할 경우 지방이 적어 그 맛이 매우 담백하다.
2. 닭과 오리등 가축에게 항생제등 약물을 투



여하지 않고 키우게 되므로 약물 비용이 절감되며 약물투여를 하는 수고로움이 없어 사육이 보다 쉬워진다.

3. 항생제와 백신 등 약품을 투여하여 키우는 일반 닭과 오리에 비해서 환경 친화적인 HJ 신기술 축산으로 기른 닭과 오리는 그들과 차별화하여 '고에너지(순수에너지) 영양닭'으로 브랜드화를 할 수 있는 등 판매에 있어 경쟁력이 있게 된다.
4. 땅과 물 및 사료를 통하여 순수 에너지를 닭과 오리 등이 사육기간 내내 받으며 자라게 되므로 이 순수 에너지가 닭과 오리 등 가축에게 축적되어 닭과 오리 등은 고에너지(양질의 에너지)화 하게 되며, 이 닭고기와 오리고기를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몸에서 좋은 작용을 하게 한다.
5. 항생제와 백신 등 약품투여를 하지 않고도 폐사율이 일반사육방법으로 기르는 평균 폐사율보다 낮아 생산지수가 높아진다.
6. HJ SYSTEM의 일체의 첨가제 없이 정화 처리한 사료와 물만을 먹여서 키우는 특수 축산 기술로 기른 닭과 오리 등에 축적된 순수 고에너지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인식시키고, 이렇게 기른 닭고기와 오리고기를 브랜드화 하여 국내에서특수층을 겨냥하여 판매 하거나,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일본 등 외국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육류의 품질을 높이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축산 기술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혁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본다.

7. 그동안 우리는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환경을 파괴시켜 왔으며, 그 결과 오늘날의 지구 환경은 나날이 나빠져 가고 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생태계 복원과 환경 친화적인 생산과 제조공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다.

그린텍의 축산 신기술 HJ SYSTEM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닌 오히려 환경을 정화시키면서 닭과 오리 등을 길러내는 첨단 신 과학 기술로서 이를 양계 등 축산에 적용하게 되면,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우리 모두가 양질의 에너지를 가진 육류를 섭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항생제와 백신 등 일체의 약물 투여 없이 키워진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을 '무항생제 닭(오리)'으로 외국에 수출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육류 품질을 높이 인정받고 많은 외화도 벌어들일 수 있다. 이는 국력신장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오랜 연구 끝에 개발된 우리의 HJ 신기술이 앞으로 지구 환경 복원과 인류를 이롭게 하는데 사용되고, 축산 뿐 아니라 많은 분야에 적용되어,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며,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들어 우리 모두가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한다

(연락처 TEL:031-772-8860)